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권근 삼대묘소 방문

부조묘와 삼문 등 시급 보수 후 권근삼대묘소 내년 국가사적지로 지정 추진 계획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권근 삼대묘소 방문(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김영환 도지사 안숙공 부조묘 방문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가 7월 30일 오후 3시 37분 충북 음성군 생극면 능안로 377-15(방축리)에 위치한 양촌 권근 삼대묘소를 방문했다. 안동권씨 3대 묘소는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과 지재(止齋) 권재(權趾, 1387~1445)와 소한당(所間堂) 권람(權輅, 1416~1465)의 묘소로 조선 최초로 3대가 대제학인 문헌(文獻)을 역임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도지사를 수행한 비서관과 노급식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장기봉 음성군 부군수, 송춘홍 음성군의회 의원, 권기윤 충청북도 문화유산과장, 보수정비담당자 김정민, 윤신애 주무관 등 10여명의 공무원들과 권오문 민선설 사장 등이 배석했다. 안동권씨 문중공 종중에서는 권오협 회장을 비롯하여 권혁중 총제공 종중 회장, 권순백 제간공 종중 회장, 권병기 안숙공 종중 회장, 권혁중 문충공 사부각장 등 임원들이 함께 했다. 권오협 회장은 김영환 도지사께 안동권씨 3대 묘역 중 묘소 4기와 신도비는 1980년 충청북도 기념물 제32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묘소와 직접 관련이 있고 위패 보관과 제례를 봉행하는 부조묘(不祧廟)와 제실은 문화재에서 제외되어 소실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 부조묘와 삼문(三門), 계단, 담장, 석축 등 부대시설에 대한 보수가 시급하고 아울러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이 필요하고 부조묘와 제실을 포함한 묘역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권오협 회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곧바로 현장 답사에 나섰다. 김영환 도지사는 직접 부조묘를 찾아 부조묘의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권오협 회장은 천상열차분야지도 석각 앞에 서 이 천문도는 1395년에 제작되었고, 제작에 참여한 사람은 총 12명으로 이 중 가장 관직이 높은 권근



삼대묘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 태조의 명을 받아 총책임을 맡아 제작하고 글을 지었다. 원래는 고구려에 있었는데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이 하늘의 천명을 받았다는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안숙공부조묘(安肅公不祧廟)에 들어가 언제 지었나, 묘소는 언제 이장했나 등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을 하며 살펴보았다.

김영환 도지사는 답사를 끝내고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 권오협 회장과 임원들과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했다. 김 도지사는 양촌 권근 선생과 소한당 권람 선생 등에 대해 역사책에도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권근삼대묘소도 국가문화유산으로 충분히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국가문화유적 지정을 신청해서 국가사적지로 승인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충청북도 지역 곳곳에 역사적 인물들의 유물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주시 청원구에는 지천 최명길 선생 손자인 최석정 선생 묘소가 있다. 최석정은 영의정을 3번이나 했고 과학 기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묘소는 초라하다. 이 분도 돌봐야 해서 지난번에 별초하라고 했다. 영동에는 송시열의 비가 서 있다. 이외에도 곳곳에 있다. 그래도 우선 안동권씨 문중에서 요청한 삼문부터 보수하도록 하겠다. 삼문에 텐트가 씌워져 있어 시급한 것부터 음성군에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누군가 도지사님은 본관이 어디냐고 묻자, 김 도지사는 나는 선산 김씨인데 조의제문으로 무오사화 때 부관참시를 당한 점필재 김종직의 후손이다. 부관참시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왔다. 점필재는 사림의 태두이다. 이후 퇴계와 율곡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권근삼대묘소는 정원으로 안성맞춤인 것



김영환 도지사(오른쪽) 권오협 회장과 담화

같다. 풍수지리를 보고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권오협 회장은 경기도 광주 오폐에서 묘소를 이장할 때 묘자리에서 물이 나오자 지나가던 스님이 반대편 산꼭대기에 연못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자 그 말대로 우물을 파자 묘자리에 물이 사라졌다. 그것이 바로 수레이뭇이고 그래서 지금도 자손들이 3년에 한 번씩 청소도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바로 앞의 저수지도 그런 측면에서 조성한 것이어서 풍수지리에 해박한 사람들에게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동권씨는 전국적으로 약 70만 명 되는데 안동에 위치한 시조 태사공 묘소를 제일 많이 참배하고 그 다음으로 권근삼대묘소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양촌 권근 선생은 안동권문에서 가장 최고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안동권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명당자리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묘역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동권씨는 조선시대 때 일반성씨 중에서 가장 많이 과거에 급제한 성씨이고 한국 최초의 족보인 성화보(成化譜)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안동에는 고려 왕건이 후백제 견훤과 싸울 때 병산전투에서 왕건을 도와 대승을 거두게 했던 안동권씨와 안동김씨, 안동장씨를 기리는 삼태사묘가 있으며, 원래는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이 신라김씨로 김평(金幸)이었는데 병산전투에서 기미에 밝아 권도에 도달했다는 병기달권(炳幾達權)의 지략으로 대승을 거두게 한 공으로 왕건이 권씨를 사성(賜姓)하여 권평(權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노급식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도의회와 음성군의회 등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동권씨대중회 방문 소감문

역사의 숨겨진 보고寶庫, 안동권씨대중회를 찾다

한국의 정신문화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친회를 따라다녀야 한다는 격언이 있다. 오늘날 인터넷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각종 고문헌들은 이미 활자화되어 생기를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문헌의 작성자는 특수한 목적의 식 아래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뺄 것인지 철두철미 기획하며, 때문에 고문헌을 통해 볼 수 있는 역사는 바로 그 저자 자신에 의해 표백되거나 왜곡된 '만들어진 역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연구실에서 하루에도 수백 권의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장 조사, 방문 조사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나는 대학에서 한국 고전문학, 특히 한문학을 공부한다. 과거 한국인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며, 그것이 현대 한국 사회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는지 탐구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몇 년 전부터는 조선 후기 한양에서 아전·중인 계층을 중심으로 난만하게 전개되었던 여항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있다. 그러던 와중, 우연히 ‘야초시집野樵詩集’이라는 제명題籤이 붙은 한 시집을 입수하게 되었다. 이 시집에 실린 발문에 따르면, ‘야초’는 19세기 말 활약했던 권재효權在孝의 호로, 당대 여항에서 시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유람 편력으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한다. 그는 40대 중반 금강산을 탐승한 뒤 “동유시화東遊詩話”라는 기행문을 남겼으며, 그의 시집에도 유람에 관련된 시가 절반 이상을 상회한다.

권재효의 문학 세계가 여항문학의 전개 양상을 해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우선 이 분의 본관이 안동일 것이라 추측한 뒤 안동권씨 족보와 종보를 뒤졌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자 종보 7면에 <권야초(權野樵) 선생은 누구인가?>라는 단신短信이 실려있는 것 아닌가. 나는 그 즉시 대중회에 연락했고, 종보 편집국장 권행완 선생님(건국대학교 겸임교수)의 안내로 제기동에 있는 대중회 건물을 찾았다. 아니나 다를까, 대중회에는 권회원 어르신께서 기탁하신 ‘야초 권재효 수언壽宴 기념 시축’ 사본이 소장되어 있었다. 권재효의 교유 관계와 활동 범위, 산수 유람이 그에게 갖는 의미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가 말년에는 대구 금곡리로 내려가 기거했으며, 흥선대원군과도 긴밀하게 교류했다는 사실 역시



이푸르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화가 광복할 정도로 진전된 오늘날에도 직접 현장을 찾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이었다.

권행완 선생님께서는 내가 편하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서, 동시에 안동권씨 인물들에 얽힌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들려주셨다. 조선 건국 이래 술한 역사의 질곡을 거치며 처지가 상반된 어르신들의 이야기, 훈백으로 연결된 타 문중에 관한 이야기, 당대 문명文名으로 이름을 떨쳤던 어르신들에 얽힌 비화 등, 뿐만 아니었다. 선생님께서는 대중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양촌陽村 권근權近 선생의 ‘입학도설入學圖說’,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인 ‘성화보成化譜’의 영인본 등, 대학에서조차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문헌들을 하나하나 소개해주셨다. 문자로 채 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와 족보를 통해 한눈에 들어오는 장구한 문종의 역사가 아울러 강렬한 인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생동하는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다.

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향하는 내 손에는 책이 한가득 들려 있었다. 모두 선생님께서 선물로 주신 안동권씨 문중 관련 자료들이었다. 한국의 역사가 반만년이고 한국을 더러 ‘기록의 나라’라 미칭美稱하고는 하지만,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과 직접 가져간 배울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가로놓여 있다. 나는 그것을 안동권씨대중회를 방문하고 나서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 막 학자가 되기 위해 발돋움하는 나를 한껏 격려해주시며 ‘살아있는 역사’ 앞에 감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권행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몇 년 전 권재효 관련 자료를 기탁해 주신 권회원 어르신께도 역시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린다. 대중회에서 제공해주신 정보로 연구를 마무리한 뒤, 소기의 성과를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기로 다짐한다.

권행완 편집국장

안동권씨 AI 족보, 팔고조도(八高祖圖) 작성 연구, 그리고 이를 통한 문사(門事)의 활성화

안동권씨문중, 검교공파 서천공종회(회장 권정수)를 중심으로

성종7년(1476년) 간행된 “성화보(成化譜)”는 단순한 족보를 넘어선, 한민족 성씨 문화의 원형이자 집단 정체성의 최초의 남아 있는 기록이다. 이후 1990년대, 한국 최초로 전자족보를 구축하며 시대의 흐름을 선도해 온 안동권씨문중은, 이제 최초로 ‘AI 족보’라는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북 상주시 공검면에 기반을 둔 검교공파 서천공종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기술적 혁신과 문화적 전통이 만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성화보부터 AI 족보까지, 디지털 족보의 흐름을 이끈다

안동권씨는 성씨 문화사에서 ‘족보의 선구자’라 불릴 만큼 기록에 대한 집념과 정성을 이어왔다. 고문서의 형식을 지닌 성화보는 물론, 이후 전자족보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초석을 다진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시작된 AI 족보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단순한 디지털화나 기록의 전산화가 아닌, AI 기술을 통해 족보 오류를 스스로 진단·보정하고, 역사 복원 및 유전 분석, 그리고 세대 간 문화 콘텐츠로 확장되는 종합 문중 플랫폼을 지향한다.



AI로 만든 족보용 루트, ROOT's에서 가지로 뻗어가는 그림, 튜튼한 뿌리

이를 위해 안동권씨문중 검교공파 서천공종회는 ‘AI 보화 연구 도서실’을 설립에 협조하고, 이곳에서 대동보와 파보 등 약 200여 종의 족보를 고속 스캔 및 디지털화한 뒤, OCR(광학 문자 인식)과 NLP(자연어 처리)를 통해 가계 구조를 정리하고 인물 관계를 자동 분석할 계획이다. 여기에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오류 검증 및 계보 복원까지 시도하게 된다. 단순히 오래된 종이를 디지털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족보를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수준에 이르는 셈이다.

팔고조도와 유전 정보의 융합, 혈연을 넘어 건강으로

AI 족보의 또 다른 진화는 바로 ‘팔고조도(八高祖圖)’의 생성 기능이다. 팔고조도란, 개인의 직계 5대 조상(총 30명)의 흐름을 시각화한 가계도로, 이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추출·분석해 제공한다. 특히 이 팔고조도를 유전자 분석 정보와 연결할 경우, 가문의 유전병 이력이나 건강상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DNA 기반 건강 리포트’로 발전하게 된다.

문중은 이를 통해 개개인의 건강 예방은 물론, 종친 전체의 건강 통계를 기반으로 한 의료적 조언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고대의 혈연 중심 족보가 이제는 유전학 기반의 건강 관리 도구로까지 활용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회관이 곧 연구소, 문사(門事)의 중심이 되다

AI 족보 시스템을 운영할 중심 인프라는 검교공파 서천공종회 회관 2층에 마련된다. 약 30평 규모의 공간은 디지털 아카이브와 AI 분석 연구소로 탈바꿈하고, 종친들이 기증한 15,000권 이상의 족보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다. 이 공간은 단순한 기록 보관소가 아니라 모바일 열람이 가능한 개방형 족보 플랫폼, 그리고 청년과 어린



안동권씨문중 검교공파 서천공종회관. 권정수 회장이 실용성 높게 현대식 건물로 건립하여 문사를 위해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가계도 워크숍, 역사 강좌, 팔고조도 전시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처럼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플랫폼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족보문화센터는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이며, 향후 성씨 단체와 문중 문화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청년 세대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NFT 족보와 AR 체험

AI 족보는 청년 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기반의 팔고조도 발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세대에게 조상에 대한 소유감을 부여하고, AR(증강현실)을 활용한 가계도 탐험 게임은 조상의 생애를 스토리텔링으로 즐기게 해 준다.

문중 관계자는 “조상에 대한 존경은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와 의미로 접근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디지털 유산 사업은 족보를 단순한 종이책에서 벗어나 참여형 콘텐츠로 변화시키며, 청년 세대가 문사(門事)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돕는다.

AI 족보 프로젝트의 의의와 전망

안동권씨의 AI 족보 프로젝트는 단순한 한 문중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한국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다. 현재 클라우드로 펀딩과 유물 기증 운동을 통해 수년 내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해외 종친과의 연결은 물론, 전 세계 한민족 성씨에게 ‘디지털 족보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족보의 디지털화에서 나아가, 기록의 복원, 정체성의 회복, 세대 간 문화의 연속이라는 세 가지 비전을 담고 있다. 그 중심에는 AI라는 기술이 있지만, 진정한 핵심은 “조상의 일을 이어가려는 인간의 의지”다.

실무 총괄은 ‘한류문화원(苑)’대표 권오철, 부장권정수(35세)에 맡기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문중 사업을 넘어 전통과 첨단, 기록과 미래를 잇는 사회 문화 프로젝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AI 족보는 안동권씨가 남기는 또 하나의 유산이자, 전통 문중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디지털 열쇠’가 될 것이다.

권오철 기자